

# 서귀포시 생태관광마을조성에 대한 주민인식에 관한 연구

이진희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 An Analysis on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Ecotourism Village Development in Seogwipo City

Lee, Jin-Hee

Dept. of Tourism Develop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rvey resident's perceptions on the development of ecotourism village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ecotourism vitalization.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four villages at Seogwipo city in Jeju province. A survey was implemented to investigate the resident's perceptions toward ecotourism development.

To speak the results of resident's cognition, First, the existing condition on the development of ecotourism village are ranked in the order of Bomok Dong, Beobhwan Dong, Topyong Dong, Kangjung Dong. Second,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for ecotourism village are ranked in the order of Bomok Dong, Topyong Dong, Kangjung Dong and Beobhwan Dong. Third, ecological residential style are most needed Bomok Dong, and equilibrium of ecosystem are most needed Bomok Dong.

**Key words :** Ecotourism, Resident's perceptions

### I. 서론

생태관광은 자원보전, 지역발전, 관광객 만족 등과 같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양하며 관련 이해집단이 많으며, 환경적으로 민감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이다. 생태관광 계획 및 정책수립, 환경 보전과 경제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내용 및 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특히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생태관광마을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귀포시는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도시로 서비스산업인 관광과 1차 산업인 감귤농업이 주를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다.

최근 들어 서귀포시의 농·어촌마을들은 농어업자원의 지속적 감소,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생산성 저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어업 경비의 급격한 증가, 국내 농수산물

개방화에 따른 농어의 소득하락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점차 어렵게 되고 있다. 지역사회 활성화의 필요성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수익사업의 하나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관광마을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생태관광은 관광의 특성상 리조트, 주제공원, 골프장 등 대기업이 대규모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업과는 달리 주민의 참여에 의한 주민이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생태관광마을의 구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나 참여의사 파악과 필요한 개발방향을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인 생태마을 구성에 대해 서귀포시 대표적인 농·어촌 마을인 강정마을, 범환마을, 보목마을, 토평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인식을 조사하여 주민인식 조사를 토대로 서귀포시 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생태관광마을의 이론적 고찰

## 1. 생태관광

생태관광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5년 Hetzer가 기존 관광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을 언급하면서부터였다(Wallace, 1992). 이후 1983년 Ceballos-Lascurain에 의해 생태관광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다(Gilbert, 1997). 1990년대를 전후해서 많은 학자들과 국제기구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생태관광학회는 생태관광을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할 기을이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 있는 여행”으로 정의하였다(강미희 등, 1999).

생태관광은 기존 관광의 대안으로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 보전하는 동시에 관광객들이 자연환경과 지역문화 등을 체험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생태관광은 자연환경보전을 전제로 다양한 자원을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이라는 점에서 기존관광과는 달리 자원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과 관광객에게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관광주체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강신겸, 2005).

생태관광은 대상지의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고 유지하는데 공헌하는 “적극적인 참여”로 표현되며, 환경 교육적 혹은 해설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시키는 물론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시도한다(Griffiths, 1993).

생태관광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꾀하되 환경보전의 가치와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adler, 1990).

생태관광이 대중관광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많은 대안관광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대중관광에서 발생된 제반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과 그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였다(Burns & Holden, 1995).

다양한 유형의 대안관광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태관광(ecotourism)인데 이미 세계 여행시장의 5~1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Dimanche & Smith, 1996).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환경적 사회문화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인 편익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생태관광을 채택하여 지역발전의 활로를 찾고 있다(강미희 등, 1999).

## 2. 생태관광마을

본 연구에서 생태관광마을은 농촌관광개념을 도입한 생태마을로 정의하고, 농촌관광과 생태마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도록 한다.

### 가. 농촌관광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에 체재하면서 농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 농업, 농특산물 등을 매개로 농촌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즐기는 체류형 교류활동이며, 농촌에는 활력과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민에게는 휴양휴식과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매개형 지역 가꾸기의 구체적 방법으로 정의하였다(조록환, 2003). 농촌관광을 넓은 의미로 자연 휴양림, 펜션 등 농촌의 각종 휴양시설 방문, 농촌지역 축제 참가 등이 포함된 농촌관광으로 정의하거나, 좁은 의미로 농촌관광마을 방문, 농촌체험활동 참가 등에 국한한 농촌관광으로 보기도 한다(송미령과 성주인, 2005).

강신겸(2002)은 농촌관광이란 농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도시민에게는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며, 농촌에는 농산물 판매(1차), 가공·특산품 생산(2차), 관광·음식물 판매(3차)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활력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박석희와 정현영(2002)은 농촌체험활동의 유형을 농산촌 지역에서 가능한 활동들을 자연체험, 전원체험, 역사·문화체험, 친수체험, 건강·보양체험, 제작체험, 레포츠체험 등으로 정리하였다.

### 나. 생태마을

생태마을은 생태공동체운동, Habitat Agenda을 배경으로 등장한 개념이다(조연희와 임승빈, 2004).

생태마을이란 용어는 길먼(Gilman, 1991)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생태마을을 “인류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먼 장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활동을 마을에 조화시키는 인간적 규모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정착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태마을은 자연생태계를 보전 복원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생활·생산양식을 가진 마을로, 마을경관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친화적인 삶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마을이다(환경부, 2004). 또한 세계적인 생태마을네트워크 기관인 GEN에서는 생태마을을 도시나 농촌에서 환경과 사람이 서로 통합을 위해 생태디자인, 퍼머컬처, 생태건축, 유기농업, 대체에너지, 공동체실천 등을 실천하는 마을이라 정의하고

있다. 생태마을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가진 주거환경이 아니라, 생태적인 가치관을 실현해 나가려는 사람들의 실천의 장으로써 현시대에 대안주거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생태마을은 도시나 농촌의 일반적인 주거양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패턴의 대안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에너지·폐기물·자원의 순환체계를 가지고 생태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생활 규모를 조성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농촌환경의 건강성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여 농촌을 다시 살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작은 실천들을 모은 친환경·생태마을은 실질적인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과 농민, 소비자들의 생활실천운동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이상엽 등, 2004).

생태마을 조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아래와 같다.

김귀곤과 이준(1999)은 우리나라 생태마을 만들기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장옥과 송미령(2000)은 환경친화적인 마을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입안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양병이(2000)는 생태계획에 대한 목표설정과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이명우(2000)는 생태마을 진흥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검토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재준(2002)은 대표적인 국내의 생태마을 사례를 분석하고, 생태마을 관련 전문가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생태마을 계획 방향을 도출하였다. Kazuhiko(1998) 등은 일본농촌을 도시와의 거리에 따라 분류하여 적합한 생태마을의 토지 이용계획을 제안했다.

해외의 생태마을에 대한 연구사례가 국내에 많이 소개되고 있고(Lindegger, 1997, Hahn, 1997, Heidrun, 2000), 국제 생태마을 네트워크의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 3. 생태관광마을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태도

생태관광이란 관광객과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 사이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관광객은 관광활동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 지역주민은 관광활동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얻는 사회교환과정(social exchange process)으로 설명될 수 있다. 관광영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관광개발로 인한 편익에 비해 지역사회의 비용이 더 크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이진희, 2000).

생태관광지는 관광대상이기 이전에 고유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및 주민의 가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주민을 제외한 생태관광은 성립

될 수 없으며, 주민의 가치를 외면한 현대성의 요구는 공연한 구호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한 지역사회의 개발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노력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계획·실시하는 주민운동을 의미하므로 생태관광마을조성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신대순, 1981).

생태관광에서는 자연지역과 지역주민, 관광사이의 통합적 관계(synergistic relationship)를 통해 보전과 개발간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한다(강신겸, 2005). 또한 생태관광에서 지역주민들은 관광경험을 제공하는 공급자인 동시에 관광자원을 보존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생태관광과 이해관계를 갖는 관광산업, 환경 지지자, 지역사회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생태관광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주민이 지각된 관광영향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조적으로 밝히려 시도하고 있다(고동완, 1998). Perdue, Long, Allen(1990)은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그것을 지지하는 것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관광개발로부터 얻어지는 개인적 혜택을 통제하였을 때, 관광영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진 지역주민들은 추가적인 관광개발과 특별한 관광개발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p(1992)는 관광영향의 인식의 결과들을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패러다임(theoretical paradigm)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에 대한 연구는 관광영향의 인식과 관련한 변수의 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주민의 특성과 관광영향의 인식 사이의 관련성의 검증을 연구하고 있는데, 관광개발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혜택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 III. 주민인식 분석

### 1. 대상지역 현황분석

본 연구는 서귀포지역의 강정동, 토평동, 법환동, 보목동 등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에게 환경을 보존하면서 방문하는 도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정비와 소득증대, 생태적 보존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의식에 관하여 연구한다.

생태개보전지역이 강정동, 법환동, 토평동, 보목동, 서귀동 일원에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 유일의 산호군락지와 다양한 해조류 군락이 존재하고 있다.

표 1.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현황

지역명	위치	지정면적 (km <sup>2</sup> )	특징	지정일자
문섬 등 주변해역	강정동, 법환동, 서귀포, 토평동, 보목동 일원	13,684	국내 유일의 산호군락지 다양한 해조류 군락 존재	2002. 1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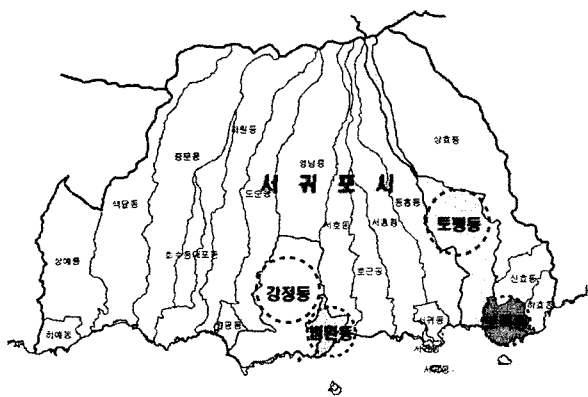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마을의 위치도.

표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보호 구역	취수장	면적 (km <sup>2</sup> )	지정 일자	취수능력 (천톤/일)	수 계
강정	강정	0.254	74.07.23	25	지하수
악근천	악근천	0.106	99.04.28	8	지하수

**가. 강정동**

강정동 북동쪽에 고근산, 북서쪽에는 궁산이 위치하며, 오름들 주변에는 각 방향으로 경사지형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북고남저의 환경사지이다. 2004년 12월 말 현재 강정동의 인구는 1,772세대 5,424명(남자: 2,649명, 여자: 2,775)이다.

서귀포시에 총 5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강정동에는 2개소의 보호구역이 있다.

서귀포시에는 총 6개소의 취수장이 있으며, 이중 2개소는 강정동에 있으며, 강정수원과 악근천수원의 시설용량은 33,000ton/day, 24,300ton/day이다.

강정동 해안가에서 해조류가 많이 생산되어 지력을 유지시키면서 영농을 할 수 있었고, 수자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논 면적이 많아 쌀을 쉽게 생산할 수 있었다. 벼, 보리, 조, 밭벼, 고구마를 주로 재배하였고, 특용작물로 목화과 참깨를 재배하기도 하였다. 강정동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인 경우 전이 4.9km<sup>2</sup>로 31.4%를 차지하며, 임야가 3.7km<sup>2</sup>로 23.7%, 과수원이 3.5km<sup>2</sup>로 23.4%를 차지한다.

서귀포시립해양공원인 문섬, 섯섬, 범섬, 서건도의 내

륙연안은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는 해양관광코스가 있으며, 경관관광유람은 물론 관광낚시 등을 즐길 수 있다. 강정동에는 서귀포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천과 악근천이 흐르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은 많은 방문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나. 토평동**

토평동은 전체적으로 북고남저의 지형으로 한라산에서 해안을 향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인정오름이 마을 북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한라산이 위치하여 있다. 2004년 12월 말 현재 토평동의 인구는 1,139세대 3,490명(남자 1,723명, 여자 1,767명)이다.

토평동에는 토평정수장이 있는데 시설용량은 19,000ton/day이다.

마을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주로 감귵이 재배되고 있다. 토평동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임야가 7,457,632m<sup>2</sup>로 46.96%, 과수원이 3,954,984m<sup>2</sup>로 24.9%, 전이 2,022,571m<sup>2</sup>로 12.74%를 차지한다.

토평동의 관광환경은 해안가에 서귀포 KAL호텔과 파라다이스 호텔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하여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다. 토평동에는 돈내코 유원지, 한라산 등의 관광자원이 있다.

**다. 법환동**

전체적으로 평지가 많지는 않으나 한라산으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해안가로 갈수록 평지가 많다. 표고는 해발 30m 이하가 대부분이다. 2004년 12월 말 현재 법환동의 인구는 989세대 3,098명(남자 1,518명, 여자 1,580명)이다.

해안지대의 평야지역은 열대작물(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재배 적지이었으나 지금은 하우스 감귵을 재배하고 있다. 법환동은 전이 812,980m<sup>2</sup>로 32.6%, 대지가 456,802m<sup>2</sup>로 18.3%, 과수원이 456,802m<sup>2</sup>로 18.33%를 차지한다.

마을 내에 월드컵 경기장과 범섬 및 칠십리 해안 등의 자원이 산재해 있어 관광여건이 양호하다. 법환동은 해너가 많고, 배낚시 관광 등이 발전한 지역으로서 관광어촌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라. 보목동**

한라산의 정남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북고남저의 지형을 이루면서 해안선을 따라 낮은 사면을 이루고 있다. 마을은 제주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높이 94.8m의 절오름(寺岳)이 자리잡고 있으며, 해안선을 끼고는 크고 작은 포구들이 있다. 앞바다의 섯섬은 면적이 약 4만여평, 높이 155m인 무인도로

마을 해변과 370m 떨어져 있다. 2004년 12월 말 현재 보목동의 인구는 1,964세대 5,425명(남자: 2,783명, 여자: 2,642)이다.

토질이 비옥하여 일찍이 보리, 조, 콩, 고구마, 유채 등을 재배해 오다가 1950년대 이후부터는 감귤을 재배하였고, 최근에는 파인애플, 화훼 재배의 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어류 양식장이 마을의 동서쪽에 형성되어 있다. 보목동은 과수원이 1,229,361m<sup>2</sup>로 33.8%, 전이 1,159,248m<sup>2</sup>로 31.9%, 임야가 466,870m<sup>2</sup>로 12.8%를 차지한다.

자리돔을 소재로 어업인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수산관광축제가 보목포구에서 해마다 6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축제기간 동안에는 자리돔가요제, 자리돔사생대회, 태우젓기체험, 선상놀래기낚시, 자리돔 어탁만들기, 보목해저탐방, 자리돔체험마당, 즉석 활자리 시식체험, 자리돔요리 판매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2. 생태관광마을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 가.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시기는 2005년 7월 11일~25일, 조사대상은 서귀포마을의 4개마을(강정, 법환, 토평, 보목)에 마을당 120명씩 편의표본추출된 표본집단 48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지는 비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성하고, 1대1 개별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설문기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생태관광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여건분석, 생태관광마을의 조성의사, 생태관광마을의 개발방향, 생태관광마을 개발시 필요시설에 대한 주민간의 인식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램 SAS 9.0 window versio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총 48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지를 제외한 409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나. 분석결과

#### 1) 전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서귀포시 4개 마을 전체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는 강정동 거주자가 97명, 토평동 거주자가 112명, 법환동 거주자가 103명, 보목동 거주자가 97명이었다.

거주마을 유형과 인구통계적 변수간의 차이검증(p<0.01)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별, 거주기간별, 직업별↔거주마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강정동 거주자와 토평동 거주자는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법환동 거주자와 보목동 거주자는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3. 거주 마을유형별 인구 통계적 특성

(단위: %)

인구특성		마을별				F
		강정동	토평동	법환동	보목동	
성별	남	28.9	32.2	17.0	21.9	21.866***
	여	16.2	20.4	37.1	26.3	
연령별	20대	15.6	40.6	26.6	17.2	56.662***
	30대	41.7	20.8	19.8	17.7	
	40대	23.6	25.5	23.6	27.3	
	50대이상	14.7	16.0	32.0	37.3	
거주기간별	10년이하	30.2	32.6	18.6	18.6	50.183***
	10~20년	16.7	43.8	19.3	20.2	
	20~30년	23.4	27.4	33.1	16.1	
	30년이상	28.1	11.0	25.0	35.9	
직업별	1차산업 종사자	31.3	20.8	22.9	25.0	45.450***
	3차산업 종사자	18.9	20.0	26.7	34.4	
	기타(학생, 주부등)	17.1	36.7	27.2	19.0	
	공무원/직장인	35.4	24.6	21.5	18.5	

주 1) \*: p<0.1, \*\*: p<0.05, \*\*\*: p<0.01

연령별로는 강정동 거주자는 30대 > 40대 > 20대 > 50대 순이었고, 토평동 거주자는 20대 > 40대 > 30대 > 50대 순이었으며, 법환동 거주자는 50대 > 20대 > 40대 > 30대 순이었으며, 보목동 거주자는 50대 > 40대 > 30대 > 20대 순이었다.

거주기간별로는 강정동 거주자는 10년 이하 > 30년 이상 > 20-30년 > 10-20년 순이었고, 토평동 거주자는 10-20년 > 10년 이하 > 20-30년 > 30년 이상 순이었으며, 법환동 거주자는 20-30년 > 30년 이상 > 10-20년 > 10년 이하 순이었으며, 보목동 거주자는 30년 이상 > 10-20년 > 10년 이하 > 20-30년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강정동 거주자는 공무원/직장인 > 1차 산업 종사자 > 3차 산업 종사자 > 기타(학생, 주부 등) 순이었고, 토평동 거주자는 기타(학생, 주부 등) > 공무원/직장인 > 1차 산업 종사자 > 3차 산업 종사자 순이었으며, 법환동 거주자는 기타(학생, 주부 등) > 3차 산업 종사자 > 1차 산업 종사자 > 공무원/직장인 순이었으며, 보목동 거주자는 3차 산업 종사자 > 1차 산업 종사자 > 기타(학생, 주부 등) > 공무원/직장인 순이었다.

#### 2) 생태관광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여건분석

생태관광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4개 마을간에 ANOVA TEST를 통하여 차이검증(P<0.05)을 실시하였고, 측정항목은 마을의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

표 4. 생태마을 조성 여건 현황 인식 차이

마을별 여건		마을별				F값
		강정동	토평동	법환동	보목동	
토지 효율적이용 적합성	평균	2.85	2.70	2.96	2.96	1.84
	표준편차	1.00	1.12	0.66	0.96	
경관 활용 적합성	평균	3.51b	3.23a	3.73c	3.59bc	6.76***
	표준편차	0.88	0.81	0.67	0.97	
에너지 절약프로그램 시행 적합성	평균	3.25a	3.07a	3.45b	3.57b	6.96***
	표준편차	0.83	0.91	0.61	1.00	
마을녹화 적합성	평균	3.06a	3.54b	3.51b	3.59b	7.57***
	표준편차	0.88	0.93	0.79	0.91	
생활오수 재활용 적합성	평균	2.78a	3.13b	2.58a	3.28b	12.05***
	표준편차	1.03	0.85	0.63	1.11	
빗물이용 적합성	평균	2.84a	3.21b	2.91a	3.53c	9.96***
	표준편차	1.12	0.94	0.89	1.01	
유기질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기에 적합성	평균	2.75a	3.39b	3.13b	3.34b	9.23***
	표준편차	0.96	0.94	0.78	1.14	

주 1) \*: p<0.1, \*\*: p<0.05, \*\*\*: p<0.01

주 2)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a<b<c, 첨자간 p<0.05에서 유의한 평균차이)

주 3) 평균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한 산술평균임

용하기 적합하다, 마을의 경관을 활용하기 적합하다,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적합하다, 마을을 녹화하기 적합하다, 마을의 생활오수를 재활용하기 적합하다, 마을의 빗물을 이용하기 적합하다, 마을의 유기질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등이다. 측정항목의 점수배점은 전혀 그렇지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경관을 활용하기에 적합성,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시행의 적합성, 마을녹화의 적합성, 생활오수를 재활용하기에 적합성, 빗물이용의 적합성, 유기질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기에 적합성이란 항목에서는 마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적합성이란 항목에 관해서는 마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법환동과 보목동 거주자들이 높게 인식하였고, 토평과 강정동 지역 주민이 낮게 인식하였다. 경관을 활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법환동 주민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토평동 주민이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태양열 등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이 거주 마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보목동 주민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토평

동 주민이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마을녹화의 적합한지에 대하여 보목동 주민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강정동 주민이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생활오수를 재활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보목동 주민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강정동 주민이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빗물을 이용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활용하기 적절한지에 대하여 보목동 주민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강정동 주민이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유기질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토평동 주민이 가장 높은 인식하였고, 강정동 주민이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3) 생태관광마을의 조성의사

생태관광마을의 조성의사와 주민참여의사를 분석하기 위하여 4개 마을간에 ANOVA TEST를 통하여 차이검증(P<0.05)을 실시한 결과 조성의사는 마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주민참여의사는 마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생태관광마을을 조성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보목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토평동이 그 다음이었다.

생태관광마을에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목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강정동, 토평동순이었다.

4) 생태관광마을의 개발방향

생태관광마을의 개발방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4개 마을간에 ANOVA TEST를 통하여 차이검증(P<0.05)을 실시하였다. 향후 생태형 주거단지가 조성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을 '전통적인 관광마을 조성' 방식과 '생태적 관광마을 조성' 방식에 대한 의견을 양 축으로 '편리한↔자연적인', '현대적인↔생태적인', '토지이용을 극대화한↔환경을 최적 이용한' 등의 어의구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측정구간은 -2점부터 2점까지로 하였다.

표 5. 생태형 주거단지 관련 의견 차이

구분		강정동	토평동	법환동	보목동	F값
생태관광마을의 조성의사	평균	3.80a	4.07bc	3.80a	4.27c	4.53**
	표준편차	1.13	1.18	0.80	1.10	
주민참여의사	평균	4.19	4.14	4.12	4.23	0.56
	표준편차	0.71	0.67	0.58	0.62	

주 1) \*: p<0.1, \*\*: p<0.05, \*\*\*: p<0.01

주 2)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a<b<c, 첨자간 p<0.05에서 유의한 평균차이)

주 3) 평균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한 산술평균임

표 6. 생태형 주거단지 조성 방향성 인식 차이

개발방향	마을별	마을별				F값
		강정동	토평동	법환동	보목동	
주거환경개선형 vs 생태적 주거환경형	평균	-0.23a	-0.14a	0.77b	0.51b	13.98***
	표준편차	1.42	1.37	1.14	1.32	
현대적생활환경 조성형 vs 생태계와 생활의 통합 조성형	평균	-0.45a	0.09b	0.27b	0.72c	12.11***
	표준편차	1.43	1.32	1.17	1.58	
토지이용극대화 vs 환경과 생태계를 최적으로고려형	평균	0.08a	0.23a	0.29a	0.85b	5.82***
	표준편차	1.47	1.47	1.14	1.36	

주 1) \*: p<0.1, \*\*: p<0.05, \*\*\*: p<0.01  
 주 2)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a<b<c, 첨자간 p<0.05에서 유의한 평균차이)  
 주 3) 평균은 가장 좌측 -2점부터 가장 우측 2점을 부여한 산술평균임

측정결과 주거환경 개선형 vs. 생태적 주거환경형, 현대적 생활환경 조성형 vs. 생태계와 생활의 통합 조성형, 토지이용 극대화형 vs.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최적으로고려형이란 항목에서 마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거환경에 대한 의견에서는 강정동과 토평동은 0을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방식인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을 선호하였다. 법환동과 보목동 주민은 중간값인 0을 상회하면서 생태적인 주거환경을 선호하였다.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문제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마을은 중간값이 0 이하인 강정동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개 마을은 생태적 방식인 '생태계와 생활의 통합조성'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방식'에 있어서는 4개 마을 모두 생태적 방식인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체적 이용형'을 선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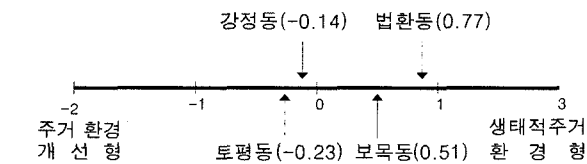


그림 2. 주거환경 개선형 vs. 생태적 주거환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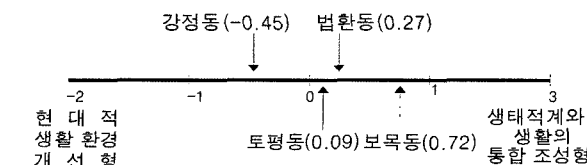


그림 3. 현대적 생활환경 조성 vs. 생태계와 생활 통합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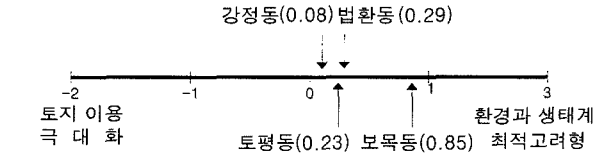


그림 4. 토지이용 극대화형 vs. 환경-생태 최적으로고려형.

표 7. 생태관광의 필요시설에 대한 인식차이

필요시설	마을별	마을별				F값
		강정동	토평동	법환동	보목동	
생태체험 시설	평균	3.64a	3.75a	3.92b	3.71ab	3.06**
	표준편차	0.58	0.74	0.44	0.91	
생태정보관	평균	3.62a	3.66a	3.75	3.81	1.46
	표준편차	0.74	0.81	0.56	0.75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	평균	3.97ab	3.80a	4.12b	4.02ab	3.14**
	표준편차	0.71	0.88	0.51	0.90	
청소년 학습장	평균	3.52a	3.63a	3.52a	4.14b	13.95***
	표준편차	0.86	0.86	0.67	0.76	

주 1) \*: p<0.1, \*\*: p<0.05, \*\*\*: p<0.01  
 주 2)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a<b<c, 첨자간 p<0.05에서 유의한 평균차이)  
 주 3) 평균은 「매우 필요하다」 5점, 「필요하다」 4점, 「보통이다」 3점, 「필요하지 않다」 2점, 「매우 필요하지 않다」 1점을 부여한 산술평균임

5) 생태관광마을 개발시 필요시설

생태관광마을 개발시 필요시설을 분석하기 위하여 4개 마을간에 ANOVA TEST를 통하여 차이검증(P<0.05)을 실시하였고, 측정항목의 점수배점은 전혀 필요치 않다 1점, 매우 필요하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생태체험 시설,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 청소년학습장의 건설이란 항목에서는 마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생태정보관 건립이란 항목에 관해서는 마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생태체험시설에 대해서는 법환>토평>보목>강정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생태정보관에 대해서는 보목>법환>토평>강정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은 법환>보목>강정>토평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청소년학습장에 대해서는 보목>토평>강정·법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IV. 결론

서귀포지역의 강정동, 토평동, 법환동, 보목동 등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에게 환경을 보존하면서 방문하는 도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정비와 소득증대, 생태적 보존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

민의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생태관광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여건을 분석한 결과 경관을 활용하기에 적합성,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시행의 적합성, 마을녹화의 적합성, 생활오수를 재활용하기에 적합성, 빗물이용의 적합성, 유기질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기에 적합성이란 항목에서는 마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적합성이란 항목에 관해서는 마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태관광마을의 조성의사와 주민참여의사에 대해서는 조성의사는 마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주민참여의사는 마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생태관광마을 조성의사와 주민참여의사에 대해 보목동 마을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생태관광마을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형 vs. 생태적 주거환경형”, “현대적 생활환경 조성형 vs. 생태계와 생활의 통합 조성형”, “토지이용 극대화형 vs.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최적이용형이란 항목에서 마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생태형 주거단지가 조성방향에 대해서는 강정동과 토평동은 전통적인 방식인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을 선호하였다. 그렇지만, 법환동과 보목동 주민은 생태적인 주거환경을 선호하였다.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문제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마을은 강정동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 마을은 생태적 방식인 ‘생태계와 생활의 통합조성’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방식’에 있어서는 4개 마을 모두 생태적 방식인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체적 이용형’을 선택하고 있다.

넷째, 생태관광마을 개발시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생태체험시설,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 청소년학습장의 건설이란 항목에서는 마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생태정보관건립이란 항목에 관해서는 마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생태관광마을 개발을 위해서는 생태정보관건립이 꼭 필요한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체험시설에 대해서는 법환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생태정보관에 대해서는 보목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은 법환, 보목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청소년학습장에 대해서는 보목, 토평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생태마을조성에 대한 주민의식을 조사한 본 연구결과는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서귀포시의 생태관광마을조성 대상지선정과 개발방향, 필요한 시설도입시 지침으로 활용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시기나 내용 등의 한계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차원적인 심층조사가 미비

하였다. 향후 주민과 함께 생태마을조성에 필요한 지표개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2005년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수행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참고문헌

1. 강미희, 장호찬, 김성일, 1999, 생태관광을 통한 바람직한 지역개발 방향, 한국공원휴양학회지 1(2) : 175-184
2. 강신겸, 2002, 우리나라 농촌관광 동향, 한국관광정책
3. 강신겸, 2005, 생태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이해관계 분석, 농촌관광연구 12(2) : 54-56
4. 고동완, 1998, 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김귀곤, 이준, 1999, 농촌생태마을 만들기, 농촌생활과학 20(2) : 56-62
6. 박석희, 정현영, 2002, 농산촌 경관 및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경기대학교 논문집 45(1) : 623-645
7. 송미령, 성주인, 2005, 농촌관광의 현황과 전망, <http://aglook.krei.re.kr/agreport.html>
8. 신대순, 1981, 한국지역사회개발론, 서울 : 세영사 : 325
9. 양병이, 2000,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환경계획 및 설계, 녹색연합, 생태마을 길잡이
10. 이명우, 2000, 생태마을 진흥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향, 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논문 발표회 생태조경분과 논문발표 및 토론회
11. 이상엽, 심문보, 정건섭, 2004, 지방자치단체의 생태마을 조성 방안, 한국토지행정학회보 10(1) : 19-22
12. 이재준, 2002, 생태마을 사례분석과 전문가 및 거주자 의식조사를 통한 계획방향 설정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36(6) : 23-39
13. 이진희, 2000, 제주관광개발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산경논집, 제14권,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 218-225
14. 장욱, 송미령, 2000,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5(5) : 205-219
15. 조록환, 2003,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 농촌사회교육 박사학위논문
16. 조연희, 임승빈, 2004, 생태마을의 경관지각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0(2) : 17-23



17. 환경부, 2004, 생태마을활성화 방안 연구
19. Ap, John, 1992, Residents Perceptions on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 665-690
20. Burns, P. & A. Holden, 1995, *Tourism: A new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21. Dimanche, F. & G. Smith, 1996, Is ecotourism an appropriate answer to tourism's environmental concerns?, *Journal of Hospitality & Leisure Marketing* 3(4) : 67-76
22. Gilbert, J., 1997, *Ecotourism means business*. Wellington, New Zealand: GP Publications
23. Griffiths, A., 1993, *Ecotourism: The nature of travel*. An issues paper Labor Government, Canberra
24. Gilman, Robert and Diane Gilman, 1991, *Ecovillages and Sustainable Communities : A Report for Gaia Trust*. Denmark : Gaia Trust
25. Hahn, Ekhart, 1997, *Demonstration Project on Eco-Village*, The International Symposium & Design Workshop on Eco-Village and Permaculture
26. Heidrun, Buhse, 2000, 생태주거단지, 생태마을 길잡이, 녹색연합 : 180-196
27. Kazuhiko, Takeuchi et al., 1998, Designing eco-villages for revitalizing Japanese rural areas, *Ecological Engineering* 11 : 177-197
28. Lindegger, Max, 1997, The Global Eco-Village and Crystal Waters Permaculture Village, The International Symposium & Design Workshop on Eco-Village and Permaculture : 27-34
29. Sadler, B., 1990, Sustainable development, northern realities and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nservation strategies. University of Calgary Press, Calgary Alberta
30. Perdue, Richard R., Patrick T. Long and Lawrence R, Allen, 1990,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4) : 586-599
31. Wallace, D. R., 1992, Ecotourism. *Landscape Architecture* 82(2) : 36